

보도설명자료

('20. 3. 2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성윤모 장관은 출입당시 본인의 발열검사 결과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, 간담회 종료이후 체온 재측정을 통해 36.4도로 확인되어 별도의 추가조치는 하지 않음
(서울신문, 3.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성윤모 장관은 자동차부품업계 간담회장 출입당시 본인의 발열검사 결과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, 간담회 종료이후 체온 재측정을 통해 36.4도로 확인되어 별도의 추가조치는 하지 않음
- ◇ 3월 24일 서울신문 <“장관 37.5도 인데... ‘정상’이라며 통과, 직책에 따라 다른 코로나 방역 매뉴얼?”>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☐ 자동차부품업계는 산업부 장관 발열에도 별다른 제지 없이 장관 참석 간담회를 강행하였으나, 일반인·취재진 몇 명은 발열로 출입을 불허
- ☐ 간담회를 주최한 자동차부품조합측이 간담회 후 성 장관의 체온 재측정 통해 정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, 방역매뉴얼을 어겼다는 비판은 불가피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간담회를 주최한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직원의 착오로 성윤모 장관의 체온을 재측정하지 않고 간담회장 안으로 출입 조치되었으며,
 - 조합측이 당초 발열 측정결과를 정상이라고 밝혀 성 장관은 출입당시 본인의 체온 측정결과를 알지 못하였음
- ☐ 동 조합측은 간담회 이후 성윤모 장관 체온을 재측정하여 36.4도로 확인함에 따라 별도의 추가조치는 하지 않았음
- ☐ 향후 산업부 관련 행사 개최시 행사 주최측이 방역 지침에 맞게 진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

※ 문의 : 자동차항공과 이민우 과장(044-203-4320) / 안재훈 사무관(4322)